

인도 고아 교구 · 망갈로 교구 소공동체 방문 보고

류현수 신부

최민석 신부

발표 :

사진설명 :

1. 일정 및 참가자

2002년 3월 11일~19일까지 사제 16명(6개 교구)과 평신도 4명이 인도에 있는 고아 교구(2박3일)와 망갈로 교구(3박4일)를 방문하였다.

참가자들은 방문 기간동안 망갈로 교구 주교, 고아 대교구 부주교, 소공동체 책임자들, 본당 사제들, 소공동체 평신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도시와 시골에 있는 여러 소공동체들을 직접 방문하였다.

참가자들은 그들과의 만남에서 ① 인도 소공동체와 관련된 교구의 사목계획, ② 본당에서 소공동체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과정, ③ 본당 사목협의회와 단체들과의 관계, ④ 사제와 주교의 역할 및 평신도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2. 인도 교회의 배경

인도는 하나의 대륙으로 볼릴 만큼 다양한 민족과 사회 형태, 방대한 인구를 지닌 반도국가이다. 10억 인구 가운데 83% 가량이 힌두신을 믿는 힌두교의 나라이고, 그리스도교 신자비율은 단 2.5%에 불과하다. 인도는 450여 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배 하에 있다가 1961년에 독립하였다. 식민지하에서 그리스도교가 선교되었고, 특히 고아 교구와 망갈로 교구는 전체 인구의 30%가 가톨릭 신자이며 그리스도교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그곳은 마치 인도 안에 존재하는 유럽을 연상시킨다.

1961년 독립 이후 인도 교회는 교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오랫동안 유럽 교회의 전통적 문화와 관습이 전체 인도교회에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교회가 쇠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그 시기는 마침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되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맞물려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혁신상이 인도 교회의 활로를 터주었다. 인도 교회는 포르투갈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1961년부터 20 여년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으로 전례와 교리, 사목체계 등을 대대적으로 쇠신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소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소공동체는 유럽교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도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도 하였다.

■ 교아 대교구

교아는 450여 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남아 가톨릭 신자들이 많고, 복장과 생활습관도 유럽적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포르투갈 교회의 벽을 깨뜨리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교아대교구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해방 이후 60년대부터 쇄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1964년에는 처음으로 전례센터를 건립했다. 교구 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교리, 가정, 청년 등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목 센터들을 건립해 현재 15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목 센터들은 90년대에 이르러 교아지역의 소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른 교아 대교구는 83년 교구 사목교서를 통해 처음 소공동체와 사목회의 구성을 중점 사업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까지 소공동체를 뿌리내리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소공동체 활성화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당시 소공동체의 모든 기획과 방향이 바로 이렇게 건립된 다양한 사목 센터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즉, 교구의 새로운 사목적 쇄신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센터들이 교구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제단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나갔다. 특히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1400만 인구에서 450만이 신자인 이 대교구에는 157개 본당들 중 131개 본당에서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교아대교구의 필립 페통 부교구장 주교는 “소공동체는 본당에서 신부 한 두 명이 다수의 신자를 사목하는 전통적인 사목구조에서 벗어나 교회 기초세포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운동”이라며 “교구에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2000년 대회년 준비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신앙생활의 쇄신’을 사목지표로 내걸고 소공동체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한다.

■ 망갈로 교구

뭍바이 남동쪽 720km 지점에 위치한 망갈로(Mangalore) 교구는 인도 교회에서 소공동체 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교구다. 400만 인구에서 40만명이 신자인 망갈로 교구도 교아 대교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소공동체가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다. 망갈로 교구장 **알로이시오 폴 드 수자 주교**는 1989년부터 교구의 소공동체를 주도해오면서 소공동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망갈로 교구는 교구장 주교의 주도하에 사제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실시되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공동체 운영을 해온 결과 현재 150개 본당 중 138개 본당이 소공동체로 활성화되어 있다. 소공동체가 이미 탄탄하게 뿌리를 내린 상태이지만 지금도 사제연수의 주된 주제는 ‘소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신부들은 “처음에는 소공동체가 무슨 캠페인처럼 느껴졌으나 지금은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성 로렌스 본당의 프란치스코 코벨리오 신부는 “신자들이 전에는 본당 신부로

바라보고 활동을 했으나 이제는 소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힘을 모은다. 전에는 신부가 ‘...하라’는 명령 하달식이었으나 요즘은 자체적으로 ‘...합시다’라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그는 특히 “신자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눈과 입으로 읽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변화가 소공동체의 소중한 성과”라고 말한다.

3. 소공동체 활성화의 주요 요인들

1) 복음나누기

소공동체의 핵심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다. 소공동체 모임은 월 1회이며, 일요일에 모이는 곳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 25가구 정도가 하나의 소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참석자는 적게는 30-40명이고 많은 곳은 70-80명이 모였다. 여러 소공동체 모임의 현장을 보면서 말씀중심으로 모인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복음의 맛을 느끼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기쁨, 평화, 사랑으로 부활케 하는 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보다 넓은 지역단위로 모이기에 사회적, 행정적 문제(마을도로, 민원 등) 해결을 실천사항으로 논했다. 복음나누기 7단계를 철저하게 하였다. 복음나누기를 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려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다. 가족처럼 친밀한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말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7단계 복음나누기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신자들 스스로가 소공동체의 좋은 점에 대해 “복음 나누기를 통해 성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태런트가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공동체 모임이 마치 그 구역의 잔치처럼 서로 기뻐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참 공동체로 다가왔다. 인도 교회의 특성에 적합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2) 주교의 의지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구장 주교의 역할이 지대하다. 망갈로 교구의 경우, 주교의 강한 의지로 교구 사제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수자 주교는 교구 책임자로서 소공동체의 비전을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먼저 사제들을 설득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을 설득해 그것을 정착시켰다. “소공동체 도입 당시 텃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본당에 전통적인 구역 개념이 살아 있었고, 각 지역마다 ‘구르카(Gurkar)’ 라고 부르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사제와 신자들에게 소공동체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시켜 주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자 주교는 그 문제를 교육과 격려로 풀어나갔다. 타 교구의 소공동체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사목방문을 나갈 때면 소공동체 현황부터 살피면서 사목자와 신자들을 독려했다. 초기에는 일주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교관으로 신부들을 불러 소공동체에 기초한 사목 비전을 일일이 설명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저는 소공동체가 21세기 교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법이라 확신하고 이러한 의지를 먼저 교구 사제단에 적극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사제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실은 신자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성직자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복음을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이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은 신자들이 자선활동과 봉사활동을 자연스럽게 주도해 나갑니다.”

3) 사제들의 지도력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 사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력이 중요하다. 망갈로 교구의 경우, 소공동체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본당 사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신부들은 반복되는 교육 속에서 교구장이 제시하는 소공동체의 비전에 공감했다. 그러나 기존의 사목구조와 관행을 하루 아침에 벗어 던지려고 서두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본당 신부들은 2~3개의 시범 소공동체를 이끌면서 신자들로부터 “우리 구역도 소공동체를 시작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 또한 교구에서도 소공동체를 도입할 당시 각 본당마다 3년 내에 한 개 이상의 소공동체를 조직운영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본당사제의 노력에 따라 소공동체 활성화는 큰 영향을 받는다. 방문했던 본당의 사제들은 소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공동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느낌을 주었다. 소공동체 모임이 열리는 곳에 사제가 함께 참여하며 개개 모임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사제가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는 거의 없다”는 배형진 신부의 지적대로 본당사제들은 비지배적인 지도력, 함께하는 지도력, 섬기는 지도력을 가졌다. 이론을 뛰어 넘어 몸에 벤 파트너십이 돋보였다. 절제된 자세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다. “소공동체를 통해 사제 스스로도 신자와 가까워지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누려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어느 사제는 말한다.

4) 사목센터

소공동체 정착과정에서 사목연구 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사목국 기능을 하는 사목연구센터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목자와 신자들에게 소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450년 동안 별 탈없이 잘 운영돼온 사목구조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신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사목센터가 중심이 되어 소공동체 평신도 지도자들을 단계적으로 교육, 양성하고 있다. 교구 사목센터와 연계된 교육체계가 매우 조직화되어 있다.

5) 소공동체와 본당과의 연계

망갈로 교구의 소공동체 운영방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만한 점은 사목회와 소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본당의 사목구조다. 이는 소공동체 초기 정착의 비결이기도 하다. 본당 각 소공동체를

대표하는 구르카(GURKAR)와 2명의 소공동체 임원이 본당 사목회 임원으로서 활동한다. 구르카는 우리 교회로 본다면 규모면에서는 구역장이며 내용면에서는 반장이라 할 수 있는 대표자이다. 이들에게 사람은 소공동체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되는데, 자신들의 소공동체를 대표해 본당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 다시 말해 각 소공동체마다 기본적으로 3명은 본당 사목회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사목회의 주요 의제는 소공동체에 관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3명이 소공동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7명으로 구성된 소공동체 운영위원단이다. 각 소공동체들은 구르카를 포함한 3명의 대표자들 외에 투표로 7명의 대표를 더 선정해 소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즉, 한 소공동체에 10명의 일꾼이 있는 셈이다. 본당에서 교육이나 행사가 있으면 이들 10명이 한꺼번에 참석한다. 여기에는 대략 25세대로 구성된 소공동체 회원들 중에서 가능한 모든 이들이 한번씩은 대표자로 활동하게 해서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망갈로 교구는 소공동체 모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본당 사제, 수도자를 비롯해 각 소공동체 10명의 대표자들 중에서 각각 1명씩을 선정해 본당의 전반적인 소공동체 운영을 조정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앙위원회에서는 각 소공동체의 대표자인 위원들을 통해 현재 개개 모임의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더 보완되고 필요한지를 살펴 이를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다.

6) 평신도 지도자 양성

소공동체 지도자 양성에 교구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회상 구현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에 부응하고 있다. 소공동체 지도자들은 교육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능력을 본당공동체와 소공동체 활성화에 마음껏 펼치고, 교회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모습이 신선하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심감 있고 활기차게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사제의 보조자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어 보였다.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였다. 전반적인 본당 운영에 소공동체 대표자들이 사목위원으로 깊숙히 참여하고 있어 소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지도자로서의 영성과 신앙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의 구역장과 비슷한 촉진자(Animator)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소공동체를 지도하고 활성화하도록 해준 것도 도움이 컸다. 고아 교구의 경우 은사 계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구성원 각자의 고유한 은사를 계발하여 소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일구어낼 수 있었다.

7) 소공동체와 활동단체들과의 관계

소공동체는 성서·기도·신앙·친교 같은 신앙생활의 핵심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기초단위(필수)이고, 레지오마리아·빈첸시오회 등은 한정된 목표와 활동성격을 갖고 있는 부차적인 신심단체(선택)라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신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었다. 사목연구센터 책임자 레오나르도 수자 신부는 “신심단체 활동 위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온 신자들이 초기에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발견하면 소공동체와 신심단체간의 위상 정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4. 참가자들의 느낌 및 평가

인도교회 소공동체 현장탐방에 나선 참가자들은 일정을 끝낸 후 느낀 점들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인도 신자들의 능동적인 신앙생활 태도에 놀랐으며, 주교님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일선사목자들이 소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소공동체를 일궈나가는 모습들에 감명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소공동체 모델의 개발과 사목자들의 인식전환, 초교구적인 소공동체 운동 추진 등 나름대로의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하향식 교회구조 개선 시급"

▲ 신현만(원주교구 사목국장) 신부 = 짧은 시간에 소공동체를 토대로 쇄신과 성장을 이룬 것이 펍 인상적이다. 특히 독단적 자세를 버리고 신자들과 함께 본당을 운영하는 사제들의 리더십이 눈에 띄었다. 소공동체 운동의 관건은 사목자의 의지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했다. 평신도 지도자 육성 시스템, 신자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수렴하는 사목회 구조 등은 배울 점이 많았다. 교회 구조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소공동체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구장을 중심으로 사제단들이 앞장서 소공동체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인도교회가 우리와 비슷한 10여년 전에 본격적으로 소공동체를 시작해 이 정도까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도 사제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구장의 소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이 소공동체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소공동체 중심 사목회 필요"

▲ 안호석(광주대교구 염주동본당 주임) 신부 = 인도교회의 소공동체를 관찰하면서 소공동체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한국교회는 소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1970년대 후반부터 반모임을 열면서 ‘작은교회’, ‘친교와 나눔’을 강조해왔다. 이즈음에서 한국교회 실정에 맞게 소공동체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구역장들이라도 사목회에 참여시키면 인도교회처럼 소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목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공동체 운동에 적극적인 사목자들이 그 동안 뜻을 달리하는 사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배울 점은 소공동체 활성화에 인도 교회가 기울이고 있는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사제들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인도교회가 소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힘은 소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예멤버들을 계속 양성해내며 이들이 다시 본당과 지역으로 돌아가 나머지 회원들을 이끌어가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교회도 전 신자 대상의 교육 이외에 중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공동체 촉진자 양성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초교구적 사목연구소 절실"

▲ 허철수(마산교구 사목국장) 신부= 인도교회는 소공동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스스로 일어 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려 하고, 그것에 고무된 신자들은 소공동체에서 신앙의 기쁨을 얻어 이웃과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교회의 경우 오랫동안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 후 토착화 부분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선택했던 것이 소공동체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교회 내 전 구성원들이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모습이 돋보였다. 인도교회로서는 소공동체가 바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돌파구였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소공동체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소공동체 운동의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소공동체 자체가 한국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이야기이다. 소공동체는 바티칸공의회 정신, 즉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이미 교회 내에 요청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육화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정과 지역교회 안에서 실천해나가는 것이 바로 소공동체이다.

분명 인도교회와 우리 교회는 처한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지만 이들이 소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이웃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인도교회처럼 초교구적으로 합심해 소공동체 사목연구소를 설립하고, 끊임없이 소공동체 촉진자를 교육하고 양성해낼 수 있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형성 ”

▲ 정월기(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 : 우리들이 방문했던 본당 사제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신자들을 어떻게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했을 때 회원들의 나눔과 기도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우리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당하고 명확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 주님의 말씀이 신자들 삶 속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기쁨을 엿볼 수 있어 좋았

다. 더구나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돼 있는 본당들의 경우 사제들이 신자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사제들도 신자들을 사랑하며 참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인도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인도 교회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전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화합하며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전 교회 구성원들이 소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어떤 소공동체 모델을 선택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복음이다.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가정과 이웃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인식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함양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반과 구역 중심으로 복음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본당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소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반모임 개선해야"

▲류현수(광주대교구 치평동본당 주임) 신부= 인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더 정확히 보게 되어 과제를 잔뜩 받은 기분이다. 인도교회의 소공동체는 월1회 열리는데도 복음 나누기가 활발하고 깊이가 있다. 반면에 우리는 주1회 모임을 갖는데도 형식적이다.

치평동본당은 5년 전 신설 당시부터 레지오 마리에 없이 소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목 회에도 소공동체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참여할 수 있다. 나름대로 시스템은 갖췄지만 그 동안 반 개념으로 소공동체를 운영해 왔다. 구역을 소공동체 단위로 묶어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번 소공동체 탐방은 현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소공동체 운동을 다시 한번 조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소공동체의 깊이였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구조로 소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인도 교회의 경우 본당 사제와 신자들 개개인이 소공동체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열정은 너무나 놀라웠다. 소공동체 회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활동하는 모습은 왜 소공동체가 교회 안에 정착되고 활성화돼야 하는지를 절감하게 해준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공동체 모델 개발"

▲ 강영옥(서울대교구 복음화사무국) 연구 담당= 10년 남짓 전개해온 한국교회의 소공동체 운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소공동체 단위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인도 교회 신자들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다. 소공동체의 이상이 이곳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미 인도교회는 공의회 정신에 따라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새로운 교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다. 특히 신자 개개인이 활발하게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복음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공동체 대표자들이 본당 사목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소공동체 회원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어 전체 본당 사목에서 소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당 일 이외에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교회와 지역이 더 붙어 나아가는 모습도 좋아 보였다.

한국 교회에는 소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신심단체와의 갈등, 한국교회에 적합한 모델인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소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더신부의 강의 중에 소공동체는 신앙생활의 ‘필수’ 이고, 신심단체 활동은 ‘선택’ 이라는 자리매김은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우리 실정에 맞는 소공동체 모델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참가자들은 소공동체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전담부서를 신설해 한국교회 특성에 맞는 소공동체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사목자들이 먼저 소공동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참가자들은 인도의 두 교구가 10여년 만에 소공동체를 정착시킨 비결은 ▲사목연구센터가 소공동체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사목자들이 신자들에게 소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소공동체 조직이 본당 사목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